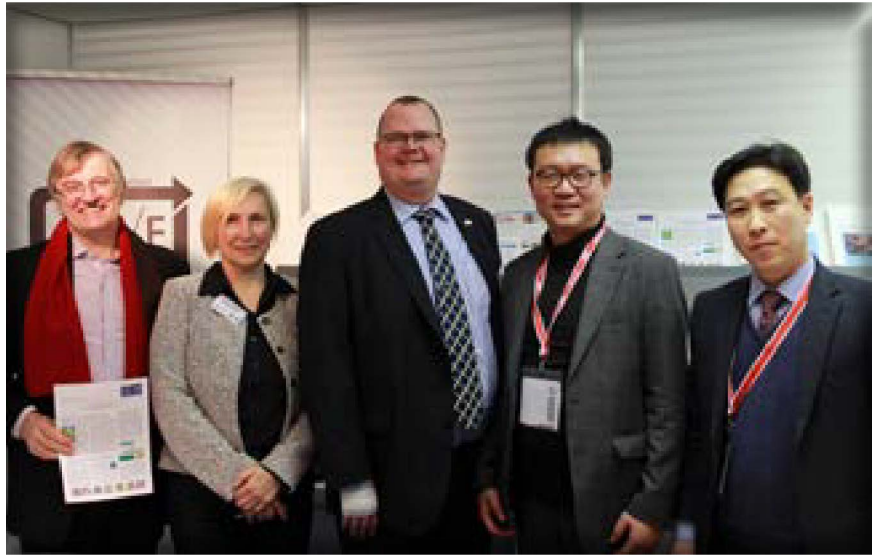


한국파사드협회(KAFA), EuroWindoor와 협력방안 모색 한국과 유럽간 상호 건축외피 산업 발전 도모

한국파사드협회(KAFA, 협회장 홍성철)는 지난 1월 20일 유럽의 창, 도어 및 파사드 산업을 대표하는 유로윈도어(EuroWindoor) Frank Koos 사무총장을 만나 한국과 유럽의 건축 외피산업 발전을 위한 상호 교류방안에 대한 의견 교환했다.

유로윈도우 협회는 유럽의 창, 도어 및 파사드 관련 단체들을 총괄하고 있으며, 1999년 창립되었고 5만개 이상의 회원사를 대표하고 있다. 회원사의 근로자수는 총 백만명을 넘고 있는 유럽 전역을 대표하는 협회로 자리잡고 있다.



좌로부터 한국파사드협회 Dr. Helmut Hohenstein 해외기술자문위원, 유로윈도어 협회 Ulrike Dobel, 유로윈도어협회 Frank Koos 사무총장, 한국파사드협회 백준길 사무총장, 한국파사드협회 전철수 대외섭외위원

유로윈도우는 유럽 전역의 30개국의 건축 외피산업을 대표하고 있다. 유로윈도우는 건축 외피관련 규격을 담당하고 있는 협회로 정부와 업계간 소통채널로서의 역할과 업계의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이다.

한국파사드협회는 국내 외피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해외 단체들의 규격 및 인증에 대한 선진 시스템의 빠른 습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해외 단체들과의 교류를 위한 움직임에 적극 나서고 있다.

또한 한국파사드협회는 국내 회원사들의 해외진출을 위한 교두보 마련을 위해서도 해외 단체들과의 교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유로윈도어 Frank Koos 사무총장은 한국과 유럽간 상호 보완적인 교류 방안을 찾기 위해 유럽 정부 및 단체들과 협의하여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한국파사드협회는 지난해 8월 창립총회를 통해 설립되었으며, 국내 창 및 건축외피산업의 발전 및 최근 건축 외피산업의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건축외피의 고효율 에너지 기술 향상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정부의 녹색건축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단체다.
<한국파사드협회 02.529.9224>

